

대추나무빛자루병 치료법 개발

대추나무빛자루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방제기술이 개발되었다. 오래 전부터 대추나무가 대부분 빛자루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산림청 임업연구원이 치료법 개발에 성공했다.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동물주사액으로 시판되고 있는 ‘테라마이신 주사액’을 이용하여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다.

임업연구원 수목병리연구실은 이 병의 병원체로 파이토플라스마임을 밝혀내, 나무에 이 항생제를 주사하면 각 가정이나 공원에서조차 대추나무빛자루병을 쉽게 방제할 수 있다.

예전에 약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옥시마이신이란 약은 2000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약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었다. 따라서 동물이나 가축약품 취급점에서 동물주사액으로 시판되고 있는 ‘테라마이신 주사액(옥시테트라사이클린 200mg 함유)’ 5ml를 물 1리터에 희석하여 나무에 주사하면 된다.

주사방법은 링거병 혹은 나무주사기에 주사액을 넣은 후 드릴을 가지고 나무에 직경 4mm 정도의 구멍을 45°각도로 내어 주입기를 꽂아 주사한다.

대추나무가 이 빛자루병에 한번 걸리면 나무의 꽃눈이 잎눈으로 변하면서 계속적으로 잎이 나와 마치 빛자루 모양을 나타내어 대추나무빛자루병이란 이름이 붙여졌다, 이 병에 걸리면 대추가 열리지 않으며, 몇 년 이내에 결국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치명적인 병이다.

대추나무빛자루병은 우리나라의 전통 약대추로 각광을 받아오던 충북 보은의 약대추나무를 거의 전멸시킨 무서운 병이다.

이번 대추나무빛자루병 완치 방제기술개발은 전국의 대추나무 재배농가에 큰 도움은 물론 도심의 가로수와 정원수를 보호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